국제 금융 속보

국제금융센터
Flash News
2024. 12. 20
해외동향부 (제 7019)

■ **주요 뉴스: 미국 3/4분기 GDP(확정치), 예상치 상회, 주간 고용지표는 양호한 노동시장 시사**

○ 연준 위원들의 내년 투표권 교체, 매파적 성향 강화 및 금리인하 제약 유도할 소지

○ 영란은행·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는 신중한 입장

○ 중국 인민은행, 위안화 고시 환율 조정 등으로 달러화 강세 대응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매파적 금리인하 경계감 지속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1%], 달러화 강세[+0.4%],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12월 FOMC 충격 여파로 장 초반 반등 무산되며 하락 마감**

유로 Stoxx600지수는 전일 미국 주가 급락의 영향 등으로 1.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 금리인하 및 일본은행 금리인상 전망 약화 등이 반영**

유로화 가치는 0.1% 상승, 엔화 가치는 1.7%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양호한 3/4분기 GDP 및 주간 고용지표 등이 원인**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6bp 상승

※ 뉴욕 1M NDF 종가 1444.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46.4원, 0.06% 하락). 한국 CDS 강보합

		12/19일	12/1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867.1	5,872.2	-0.09%
	유럽	506.66	514.43	-1.51%
	중국	3,370.0	3,382.2	-0.36%
	일본	38,814	39,082	-0.69%
	한국	2,435.9	2,484.4	-1.95%
환율	달러지수	108.42	108.03	+0.36%
	유로화	1.0363	1.0353	+0.10%
	엔화	157.44	154.80	-1.68%
	위안화	7.2958	7.2857	-0.14%
	원화	1,447.3	1,439.1	-0.57%

		12/19일	12/18일	전일대비
국채금리 10y	미국	4.56%	4.51%	+5bp
	독일	2.31%	2.25%	+6bp
	영국	4.58%	4.56%	+2bp
CDS 5y	한국	37bp	37bp	+0bp
	중국	66bp	65bp	+1bp
위험지표	EMBI+	-	355	-
	VIX	24.09	27.62	-12.78%
원자재	WTI유	69.91	70.58	-0.95%
	구리	402.1	410.0	-1.94%
	금	2,594.0	2,585.4	+0.3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3/4분기 GDP(확정치), 예상치 상회. 주간 고용지표는 양호한 노동시장 시사**

○ 3/4분기 GDP(확정치)는 3.1% 증가(전기비연율)하여 잠정치 대비 0.3%p 상향 조정되었고, 시장 예상치(3.0%)도 상회. 이는 소비지출 증가율(3.7%)이 '23년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점과 양호한 수출 부문을 반영한 결과. 기업 및 주택 투자, 정부 지출도 상향. 다만 주택 고정투자와 민간 재고 투자 등은 하향 조정

○ 12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2만건을 기록하여 전주(24.2만건) 및 예상치(22.9만건) 하회. 연속 청구건수도 전주비 감소(187.9만건→187.4만건). 연말 휴가 시즌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 11월 기존 주택판매는 전월비 4.8% 증가한 415만채(연환산) 기록. 반면 12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가 -16.4로 전월(-5.5%) 및 예상치(2.9%) 하회. 이는 1년 8개월래 최저치로 제조업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

○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경기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 다만 내년에는 정책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확대될 전망. 또한 연준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인하 전망이 이전보다 후퇴(Nationwide). CME의 FedWatch는 계속해서 내년 2회의 금리인하(각 0.25%p) 가능성을 제시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위원들의 내년 투표권 교체, 매파적 성향 강화 및 금리인하 제약 유도할 소지**

○ 매년 1월 연준 위원 12명 중 4명이 교체되며, 내년에는 시카고·보스턴 세인트루이스·캔자스시티 지역 연은 총재들이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될 예정. 이들 가운데 일부 위원은 비교적 매파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 이는 내년 금리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제동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IMF, 경제 불확실성 고려 시 연준의 금리인하는 적절한 대응**

○ 최근 미국 노동시장 냉각과 물가 상승세 둔화를 고려할 경우 연준의 금리인하는 적절했다고 평가. 다만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 방식을 지지. 한편 근원 PCE 물가의 연간 상승률이 연말에 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계속해서 목표치 2%(연율)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

■ **미국 인구조사국, 이민자 주도 인구 증가세 지속. 이는 경제 성장에 기여**

○ 최근 1년 동안 순이민자 수는 약 270만 명으로 추산되며, 신규 이민자가 전체 인구 증가의 84%를 차지. 이민자 순유입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미국 상무부, 반도체 공급망 강화 위해 보조금 지급. 불법적인 유출 경로도 조사**

○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SK Hynix의 신규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4억5800만달러 규모의 직접 지원 및 5억 달러의 대출 제공 결정. 한편 Nvidia에는 최근 중국으로 칩이 유출된 경로를 조사하도록 요구

■ **ECB 심쿠스 위원, 점진적 금리인하가 적절. 최근의 인플레이션 제어를 반영**

○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심쿠스 총재는 역내 인플레이션이 점차 제어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일관된 속도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

■ **영란은행·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는 신중한 입장**

○ 영란은행은 핵심 정책금리를 4.75%로 동결. 이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반영. 베일리 총재는 향후 금리인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

○ 일본은행은 단기금리(익일물 무담보 콜금리) 유도 목표를 현행 0.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 9명의 정책위원 중에서 1명만이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 우에다 총재는 내년 봄 임금협상 결과와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 이에 시장에서는 1월 금리인상 기대가 약화

■ **중국 인민은행, 위안화 고시 환율 조정 등으로 달러화 강세 대응**

○ 12/19일 일일 고시 환율을 7월 이후 블룸버그 전망치 대비 가장 편향도(bias)가 높은 수준에서 제시. 이는 위안화의 평가 절상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이를 반영하여 역외 시장에서도 위안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0.2% 상승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2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PCE 물가, 개인소득 및 지출, 12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

○ 중국 LPR 금리결정, 유로존 12월 소비자신뢰, 독일 11월 PCE 물가

미국 대선 이후 주요 동향 및 해외시각

■ **[주요 동향] 트럼프의 임시예산안 반대, 셧다운 가능성 증가. 캐나다는 관세 대응 강조**

○ **트럼프의 임시예산안 반대, 셧다운 가능성 증가:** 트럼프 당선인은 공동 성명을 통해 임시예산안에 반대하며 지출 규모 축소 및 부채한도 증액을 요구. 또한 트럼프는 현 법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예비선거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 이러한 정치적 충돌로 22일 자정부터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 증가

○ **캐나다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대비 재정 대응 강조 :** 르블랑 신임 장관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경제적 충격으로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

○ **러시아, 트럼프와의 협상에 전향적** :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하여 트럼프와의 협상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발언. 한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가 EU와의 단합을 통해 러시아 침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 **유권자 51%, 트럼프 관세에 반대 :** 퀴니피악 대학교 조사 결과, 유권자의 51%가 트럼프의 멕시코·캐나다·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계획을 반대. 38%만이 이를 지지. 특정 정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관세 계획에 부정적

○ **인도, 트럼프 대비 무역 협상 전략 마련 :**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또한 미국과의 무역 및 투자 협정 체결을 모색

■ **[해외시각] 트럼프 주요 정책, 연준의 경제 전망 및 원자재 가격 관련 불확실성 가중**

○ **트럼프 정책, 연준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증폭시킬 소지 :** 연준은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내년 금리인하 전망을 축소하고 물가 예측치를 상향. 이는 정치적 편향이 아닌 경제의 실제 흐름을 반영한 예비적 대응이지만, 양 진영의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Financial Times)

○ **트럼프 관세,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 초래할 가능성 :** 트럼프 취임 이후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될 경우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특히 구리, 철광석 등은 트럼프의 정책 실행 강도에 따라 가격 변동성도 좌우될 것으로 판단(Reuters)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주요 중앙은행의 효과적 중립금리 판단, 올바른 정책금리 제시의 선결 과제 - Financial Times**
(A new year's resolution for central bankers)

○ 중립금리는 가변적이라는 특성 등으로 정확한 산출이 어려우며, 이에 정책 당국은 대체로 추정치 제시를 회피. 하지만, 정책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립 수준의 정량적 추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매우 중요

○ 첫째, 현재의 정책금리 위치 및 이에 따른 경제 영향 판단이 가능. 둘째, 광범위한 금융 여건(모기지 금리 등) 파악에 용이. 셋째, 금융 변동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지출 안정화에 도움. 넷째, 투자자와 합리적 예측을 위한 견해 공유 가능. 아울러, 중립금리 판단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 제공할 필요

■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대처를 위해 관망이 올바른 선택 - 블룸버그**
(The Fed Is as Clueless as Markets)

○ 연준은 12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 금리인하 가능 횟수를 2회로 축소(vs. 9월 FOMC 4회). 연준이 우려하는 불확실성은 다음 3가지 요인에 기인. 첫째, 트럼프가 제시한 주요 정책은 상반되는 결과 초래할 소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으나, 과거에는 무역전쟁 여파로 경기 둔화가 발생

○ 둘째, 인플레이션 데이터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특성을 보유. 셋째, 최근 경제 여건에서 정확한 중립금리 수준 판단은 매우 어려운 과제. 향후 경제는 결국 트럼프 정부가 제시했던 공약을 어느 수준에서 이행하는지에 따라 좌우될 전망. 어느 누구도 이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연준 역시 유연한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

■ **트럼프의 對中 관세, 내년 중국의 수출과 경제 성장에 상당한 타격 예상 - Financial Times**
(Donald Trump's tariff threat adds to fears over China growth)

○ 금년 중국 수출(1~11월)은 전년비 5.4% 증가했고, '24년 전체 GDP 성장률(4.9%)에 대한 기여도는 3/4으로 추정(Goldman Sachs). 이는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장기 경기 둔화 국면에서 수출이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임을 방증

○ 그러나 다수의 기관은 내년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 및 이에 따른 잠재적 영향 등으로 중국 수출 성장의 상당한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특히 30%와 60%의 관세율 적용 시 GDP 성장률은 각각 0.8~1.0%p(Barclays), 2.0%p(Macquarie) 떨어질 것으로 추산. 이에 중국의 디플레이션 문제도 심화될 소지

금융시장 주요 지표

S&P500 및 KOSPI

미국 및 한국 국채 10년물

자료 : Bloomberg

달러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브렌트유 및 유럽 천연가스

자료 : Bloomberg

VIX 및 EMBI+

달러-원 스왑베이시스 및 한국 CDS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